광주과학기술원 **비평 crit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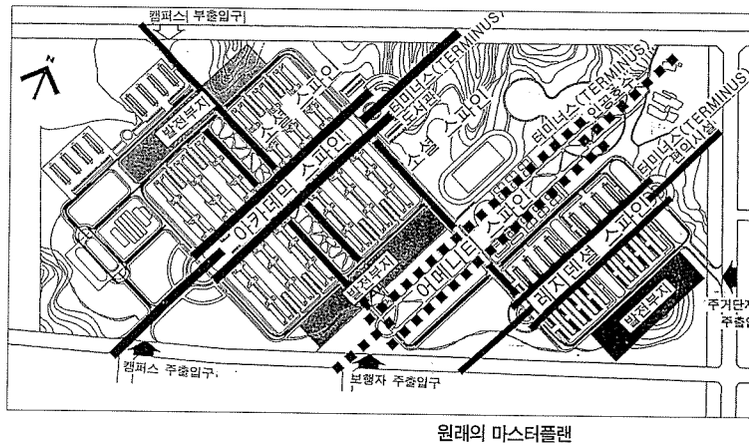
Kwangju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청결에 대한 집착

Obsession for Purity

조희철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Zo Hitchul



원래의 마스터플랜

"단 한번도 알맹이는 구한적이 없이, 모든 사물들을 겉 껍질만 보고, 어루만지고, 핥는다."

"안으로의 여행" 중에서, 송기원(1999)

들어가면서

김기웅 소장이,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김봉렬 교수와의 대담 끝머리에 앞으로의 지향이랄까, 미래의 건축가상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을 불쑥 꺼내면서 그에 대해 한참을 설명하더니, 가져가 한번 읽어보라면서 권한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사십여년을 건축에 몸담아 오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그가 최근 심취해 있는 것이 모든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니, 참으로 뜻밖이었다. 그 연유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갔다.

어찌보면 건축은 여러 집착으로 올이 짜인 직물과도 같다. 우선 건물을 의뢰하는 사람이 가지는 욕심이 있을테고, 그 의뢰를 받아 설계를 하는 사람의 집착도 있을 터이다. 정작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그 건축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무리없이 담아내고, 그 활동의 의미를 외적으로 표방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그 일을 누가 의뢰하고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알맹이를 제대로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그런 점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신선하게 와 닿을 수 있다.

욕심같았으면 그런 관점에 입각해서 광주과학기술원을 보았으면 했지만, 곧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에 얼마나 잘 부응하고 있는가를 보았으면 했지만, 잠시 한번 둘러본 경험으로는 그 알맹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은 뻔한 일이고, 따라서 그 부응정도(내지는 집착정도)를 논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작가의 작품

"Never once was the content sought. Only the surface of things are touched and felt."

from Song Ki-won's The Journey Inwards(1999)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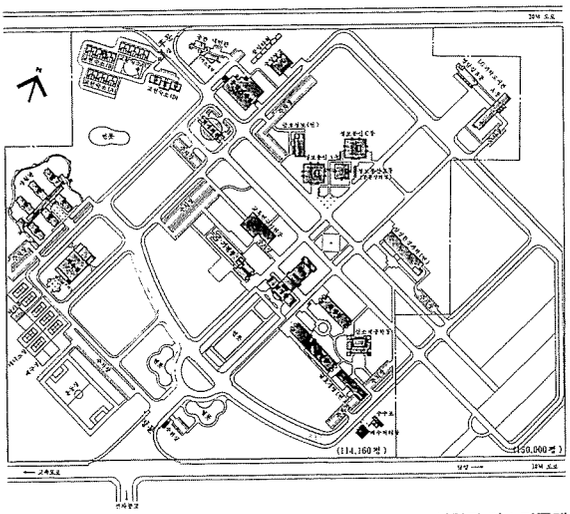
In the closing of an interview with professor Kim Bong-ryul on Kwangju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 Science, architect Kim Kee-woong, asked of his future plans or his idea on the architect of the future, unexpectedly mentioned the attitude of 'emptying one's heart', and following a lengthy explanation, offered him a book, from which the above passage was excerpted. It was surprising that architect Kim, after forty years in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should remark upon such a humble perspective. No further inquiries were made on the subject, but somehow we could sympathize with what the architect meant.

In a way, architecture is a web of textile interwoven with our various obsessions. The possessive will of the client is followed by the obsessive geist of the designer, but what should really matter is the capacity of the product - the building - to house the diverse activities that will take place, and the transition of the action's meanings into external forms. In this respect, we can close in on, even be given refreshed point-of-view from, the ambiguous remark of the architect.

The Original Masterplan

Passing the tollgate into Kwangju, one comes to a town with the strange name of 'Biara,' from which a ten-minute-ride leads to the industrial district for advanced technology. The region was conceived and built by the former government to promote research activities on science and technology, a field not so characteristic to the region then. In this district is placed the new Kwangju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As the way most other over-ambitious governmental projects end up, the district also found itself soon cut off from government funding, which naturally resulted in the cancellation on the construction of



실현된 마스터플랜

성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쉽사리 덤빌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여기서는 몇가지 구할 수 있었던 자료와 답사한 경험을 토대로 얕은 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음을 (그리고 광주에 산다는 죄로 발목이 잡혔음을) 먼저 고백한다.

원래의 마스터플랜

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를 조금 지나 들어오면 비아라는 묘한 지명을 가진 동네가 있다. 한자로 飛鵝라고 쓴다. 지명의 유래는 모르겠으나 거위가 퍼덕거리고 날아 다녔던 동네라는 뜻인 모양이다. 그 비아 인터체인지에서 10분정도만 들어오면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있다. 이름 그대로 낙후된 전남 광주 지역에도 첨단과학을 부흥시킬 베드타운을 만들어 주겠다는 과거 정권의 야심찬 선심행정으로 조성된 단지이다. 바로 이곳에 이 지역 과학진흥의 첨병역할을 할 광주과학기술원이 들어서 있다.

선심행정이 모두 그렇듯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기공식 테이프만 끊고 나면 그 뒤의 일은 대체로 용두사미격이 되고 마는 것이 통례인데, 불행하게 여기도 그 경우를 맞고 말았다. 유치하기로 약속했던 시설들은 예산부족으로 하나 둘씩 취소되고, 그나마 입주하려는 업체나 기관들은 토지개발공사가 제시하는 턱없이 비싼 땅값에 어이없어 하며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 비싼 땅값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주변 가로를 둘러보면 전신주 천지이다. 요사이 어느 주거단지를 보아도 전신주는 찾아볼 수 없다. 지하관로를 묻는 것보다 전신주를 세우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서였을까? 첨단지구에 전신주?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첨단 과학시설보다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와 신흥 유흥지대가 들어서서 첨단하면 광주사람들에겐 여러 아파트 단지중 하나, 혹은 물좋은 술집 있는 곳쯤으로 각인되고 있다. 첨단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제 대접을 못받고 있는 곳도 없을 것이다.

광주과학기술원도 예외는 아니다. 원래는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었고 그 규모에 걸맞는 캠퍼스 부지를 정해 현상에 붙였었다. 하지만 당선안을 뽑아놓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원만 우선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대로 책정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건축비 및 대지 매입비 확보에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차질이 왔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애초의 현상안은 원안대로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주어진 마스터플랜상의 대지는 1:2가 조

various institutes. Other institutes and companies, still willing to move into the district, were also discouraged by the unbelievably high land value, which is in fact a curious point since the region is filled with telephone poles - A research area for advanced technology with telephone poles? They are nowadays hardly visible even in regular residential districts. The region has then been gradually occupied with apartment buildings and amusement quarters. Vestiges of what once had been called 'advanced technology' are seldom, if ever, noticeable.

The Kwangju Institute of Technology was no exception - Plans to develop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in a campus of grand scale that meets the spatial requirements, were suggested in the original design competition. But during the actual execution of the project, fundings were reduced, construction fees decreased, and land purchases also fell short of the original plan. They had no other choice but to lose the undergraduate courses and rearrange the Institute as a graduate school.

The primarily proposed masterplan was on a site with a ratio of 1:2 between its length of shorter and longer sides, which included some moundings. The new site, now about half the size of the original with a square shape, is a rather flat area, since the civil engineering division unfortunately exerted what skills they had into evening the ground. The use of the land will become more productive in a most functionalist point-of-view, especially in its layout of the path's grid structure, but before such rationalized reaction we are struck with the thoughtlessness of so roughly handled executions. This sort of tabula rasa will only provide an ideal site to the modern purists.

The striking feature of the original masterplan - the layout of its inner paths in relation to the adjacent roads and its overall partition into two zones - all had clear intentions behind them. The rotation of the inner grid by 45 degrees from that of the neighborhood regions was a natural result to achieve a maximum length of path, to which various future expansions could be added. It would also help to make the buildings closer to the preferred orientation towards the south.

The division of the area into two was to establish the distinction of the academic and the residential, between which an amenity area functions as a buffer zone. Social spines, distributed in small scales across

금 넘는 비례를 가지고 있었다. 지형의 굴곡도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대지의 규모가 원래의 반정도로 줄어들고 대지의 비례도 1:1 정도로 모양이 바뀌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원래 있었던 지형의 굴곡을 토지개발공사가 평평하게 밀어버리고 만 것이다. 물론 단지 전체의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단지 그 무도함에 기가 질릴 뿐이다. 이제 새로운 마스터플랜은 기댈만한 아무런 지형지물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다.

그나마 설계자에게 다행이라면 반쪽짜리 땅만 남았지만 마스터플랜의 골격(도로망)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나 할까? 그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대표적으로, 애초에 대나무에서 모티프를 따와 형상화했던 (아마도 알루미늄 패널로 경쾌한 외장을 갖추었을) 가로누인 원통형의 건물들은 침착한 사각형의 벽돌조 건물로 둔갑하고 말았다.

원래 마스터플랜의 전체 배치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있다. 일단 주변도로에 대해 사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크게 보아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김기웅 소장에게 45도로 각도를 튼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아카데믹 스파인에 여러 교육연구동을 붙여 나가기 위한 종심의 길이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물론 남향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었을 것이다.

크게 구분되는 두 구역은 각각 아카데믹 스파인과 레지덴셜 스파인이라는 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 사이에 어메니티 스파인을 두어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소셜 스파인이라는 것을 군데군데 두어 사람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 각각은 종점(터미너스)를 가진다.

각 구역내의 배치는 인체에서 유추한 듯하다. 교육연구 구역의 경우, 머리부분에는 모든 정보의 집적장소로서의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아래로 두겹의 척추가 내려뻗으면서 그 축선상의 중앙부에 행정동, 국제회의동이라는 연구지원시설이 배치되고, 그 양쪽으로 팔다리가 붙듯 각각의 연구 강의동이 붙는다.

여기에는 또다른 질서도 부과되고 있다. 그것은 통상 기념적인 건물의 배치에서 사용되는 주축과 부축으로 이루어지는 질서이다. 주축은 한눈에 알 수 있듯 아카데믹 스파인이고, 부축은 한가운데를 좌우로 가로지르는 녹지띠이다. 따라서 인체의 유추에만 의존할 경우 대지로의 주출입은 인체의 위치상 항문(?)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잡게 되지만 주축-부축이라는 질서체계를 따르면 주축선상에 주출입구가 배치됨으로써 그 정당성을 회복한 셈이다. 이러한 패턴은 거주지역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실현된 건물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은 원래 마스터플랜상 교육연구활동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거주지역 등을 위한 대지를 확보할 수 없었던 관계로 대지 왼쪽 부분에 교원숙소와 기숙사, 체육관과 학생회관을 배치하고 있다.

애초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두겹의 축선상에 연구동을 붙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배치도에 나타나듯 가로의 형태만 유지되고 있을 뿐 건물들은 거의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배열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타워형의 건물을 배치하면서 또다시 직교하는 가로패턴을 거부하는 제스취를

the whole Institute, promotes the community value of the region.

The layout within each district seems to have stemmed from an analogy to anthropomorphic shapes. In case of the education and research area, the library, a storage of information, sits where it should be the head of a human. A double spinal chord extends down from it, whose center is occupied by the supporting facilities - management office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To their sides are added the hands and legs, or the research and lecture centers.

Another order is applied in this structure. It is one often employed in monumental institutes, that is controlled by the main and sub axes. The main axis is unmistakably the academic spine, whereas the sub axis is realized as the green strip that runs across the body of the Institute. The uneasy placing of the main entrance according to the anthropomorphic reading, which aims at a very private part of the human body, can be revised by this comprehension of the masterplan as a combination of two principles. This pattern is also applicable to the residential area.

The Realized Works

The now completed part of the Institute is where the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were located in the original masterplan. As it was no longer possible to gain additional site for the residential area, the dormitory, gymnasium and student's hall were placed to the left of the academic region.

As mentioned above, the original scheme was to add research centers to the double axes of the site, but the actual layout of these buildings were mostly independent, with a slight indication of axis by the main road. What was interesting, however, was the placing of the tower building which defies the perpendicularly composed pattern of the road, which was a negation of the very negation that he placed in the first place. It was an indication which indeed 'defied' any simple explanation.

The Main Entrance: As the main axis from the approaching road into the Institute is obliquely placed, a triangular space is created on its entrance that provides a visual commodity. But the search for the destination -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부정을 통해 설정한 규칙을 다시 부정하는 마인드를 뭐라 설명해야 할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 했던가? 아니면 부정을 집착이라 보고 그 자체를 또 부정하는 네티-네티의 방식으로 보아야 할까?

• 주출입구: 정문을 들어설 때 주축선을 사각으로 틀어 놓은 이유로 전면에 삼각형으로 후퇴된 공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급박하지 않고 여유로운 느낌을 준다. 다만 방문할 당시 약속장소였던 본관(행정동)이 어딘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정문 수위에게 위치를 물어보는 수고는 면할 수 없었다. 그 이유를 나중에 곰곰 생각해 보니 정문 뒤로 50여미터 떨어져 주축선상에 심어져 있었던 몇그루 소나무 때문이었다. 사실 배치도 상에서건, 혹은 조감사진에서건, 로툰다를 머리에 이고서 둥근 열주로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본관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차를 타고 정문에 들어섰을 때 그 눈높이와 시야에서 보이는 것은 비슷비슷하게 즐비한 벽돌 건물과 (알고보니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소나무 몇그루였다. 감히 소나무 몇그루 따위가 배치의 핵심을 이루는 본관 건물을 가로막다니! 하지만 소나무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주된 이정표가 되는 건물에 대한 시야를 조금만 확보해 주었더라면 당혹감은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한다.

• 연못: 배치도상에 연못은 주출입구 좌우에 2개, 본관 전면에 1개, 교원숙소쪽에 1개가 보인다. 주출입구 좌우에 있는 연못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쳤고, 교원숙소쪽은 가보지 못했고, 본관 전면쪽 연못만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이 연못은 구도와 카메라 높이를 잘 조절하면 전면 건물들이 물위에 반사되어 장관을 보이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그런 장관을 보려면 지나 다니는 사람들도 눈높이를 조절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있을 일이 좀처럼 없다는 점이 문제다.

본관 전면에 있는 연못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출입구 좌우에 있는 연못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오히려 학생회관으로 이어지는 중앙 녹지띠 어딘가 적당한 장소에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매캐한 실험실에서 시달리다 잘 안 풀리거나 잠시 짬이 나는 경우 바람을 쏘이러 바깥으로 탈출한다. 이때 어느정도 무성한 숲과 잔잔한 연못은 그 사람들의 심성을 순화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생회관: 학생회관은 아직 대학원만 있기 때문에 써클룸보다는 식당, 휴게실 등의 역할이 더 크다. 방문했을 당시 한바퀴 둘러보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회관 뒤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걸어간 적이 있다. 본관쪽 근방에서 대략 5분정도 못미치는 거리였지만 햇살을 가릴만한 아무 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곤욕을 치뤘다. 물론 하루종일 연구실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한번만이라도 기후의 여러 상태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겠지만, 중앙의 녹지띠를 최대한 활용하여 식재라든가 지붕덮힌 통로 등을 두어 따가운 햇살과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덜 지루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숙사: 기숙사 각동의 배치는 초기 현상안의 배치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곧 척추를 이루는 중앙 홀/복도에서 각 동이 붙어나가는 방식이다. 1층의 기다란 홀은 복도와 휴게홀의 양면을 겸하고 있으며, 휴게홀 상부는 2층복도 옆을 뚫고 올라가 시원한 느낌을 준다. 다만 휴게홀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숙사동 전면에

the main hall - was not so easy, and the aid of the security guard was inevitable. After some speculation, I realized that the search was difficult because of a group of pine trees that were planted along the main axis, some 50 yards behind the main gate. Looking at the layout drawings or photographs taken from a bird's-eye-view, one can hardly miss the main hall, emphasized from its surroundings by the rotunda and the round colonnades, but once you approach it on the ground, the vista is obscured by the pine trees and some brick buildings that cannot be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Landscape planning had to be considered in the masterplan of the Institute, from the perspective of an actual visitor.

The Ponds: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there are several ponds in the Institute - two to the sides of the main entrance, one in front of the main hall, and another at near the dormitory. The ones at the main entrance were passed without recognition, the one at the dorm I didn't have a chance to come across, but the pond in the courtyard of the main hall, reflecting the overall image of the building when seen from a proper point, was worth the visit.

The symbolical meaning of this pond justifies its presence, but the ones at the main gate were better to be placed along the green strip, connected to the student's hall. Yet, the idea to have these replications of nature will surely prove to be greatly beneficial to the researchers of the Institute, most of whose working condition is confined to closed laboratories.

The Student's Hall: The hall, as the Institute is yet only for graduate courses, is mainly used as cafeteria and rest areas. At the time of my visit, it got around lunch time and I went to the guesthouse at the rear of the student's hall. It was about a five-minute walk but I dearly missed some sun-blocking shades. It is encouraging that a natural environment is provided for the researchers, but a thoughtful addition of landscape elements, those from the green strip, would have presented a much more pleasant experience of promenade.

The Dormitories: The layout of the dormitories follow the original pattern of the accepted masterplan - one which promotes additional buildings along the spinal hallway. The linear hall of the first floor serves the double function of a corridor and resting area, while the space of the latter penetrates the corridor of the second floor and creates a sens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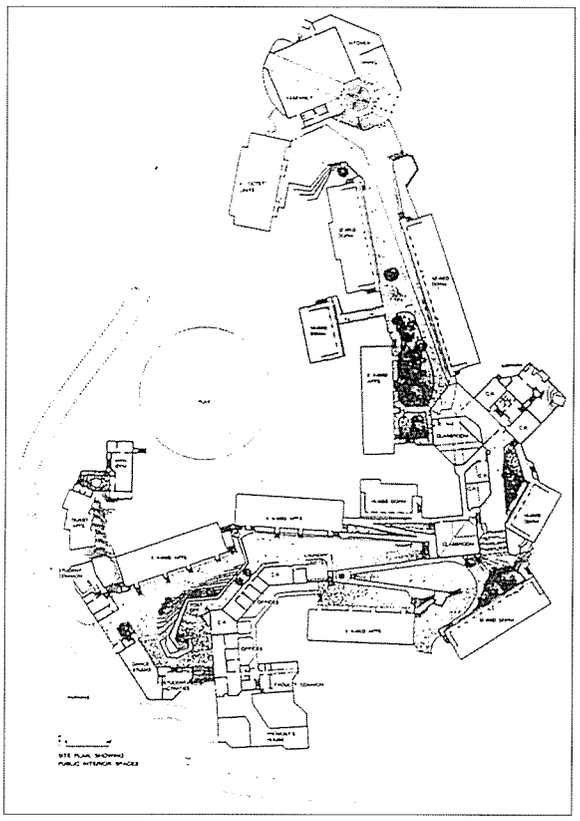
자전거가 즐비한 것을 보면 학생들의 이동거리가 걷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을 느끼게 한다. 학생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연구동쪽으로 근접해 배치할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맺음말

사실 인간의 활동들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계획각론에 주거에서의 활동을 취침, 취사, 생리적 욕구해소, 단란, 응접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것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양식주택에서의 분리방식과 한식주택에서의 분리방식은 다르며, 어느정도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캠퍼스에서의 활동도 분류할 수는 있으나 그 활동 각각을 격리하는 방식은 다른 얘기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원래 마스터플랜상의 배치를 다시 보면 단순 명쾌하며, 청결(Sanitized)하다. 교육연구지역과 거주지역은 사각으로 배치된 덕에 서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다. 다만 연결도로를 통해서만 이어질 뿐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실현된 안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를 각각의 지역지구로 구분하는 아이디어와도 상통한다. 캠퍼스를 도시의 축소판이라 본다면 다른 방식의 배치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 점에서 찰스 무어의 크레스지 칼리지의 배치개념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무어는 기숙사와 강의실, 교수연구실을 통합한 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식당과 학생회관은 배치의 정점에 자리한다. 이처럼 청결한 격리의 방식 대신 혼재의 방식을 취한 것은 사실 그가 캠퍼스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



찰스 무어의 크레스지 칼리지

의 핵심을 간파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빈자리에 성격이 다른 활동들도 담을 수 있는 시설들을 둔다면, 그리고 녹지띠 등의 외부공간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훨씬 활기에 넘치는 캠퍼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voidness.(The protection against the noise from this space is left unsolved.) There is a great number of bicycles parked outside the dormitory, which is an apparent proof of the distances between the facilities. As with the student's hall, one wonders whether there was an alternative choice to place the dormitory closer to the education and research area.

Conclusion

Contrary to what the textbooks of architectural planning teach, human activities cannot be classified into fields such as sleeping, eating, resting, etc. Even if we view it as such, the divisions are again subject to regrouping along the distinctions between traditional and western housings, which itself is no longer an objective criterion. The activities taking place in a campus also oppose sharp categorizations - The architectural method of securing individual spaces is another.

The primarily proposed masterplan of Kwangju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 & Science are at once clear and sanitized. The oblique relation between the research area and the residential district prevents any undesired crossings, yet a connecting road leaves open a possibility of interrelation. Such idea survives the process of reduction caused by financial shortages, and can be comprehended by its similarity to the concept of the city as a synthesis of split entities. The analogy of the campus as a scaled-down city, however, could have opened up for ideas much more innovative.

In this respect, Charles Moore's plan for the Kresge College can be an exemplary case. He proposed a scheme which integrates the dormitory, lecture halls and research laboratories, and at its edge placed the cafeteria and the student hall. This chaotic layout, quite contrary to the sanitized plans of most other colleges, is perhaps a result of Moore's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activities which take place within. The Institute of Kwangju, the object of this essay, still has enough spaces and possibilities, and above all the basic resources, to develop into a more vigorous place of research and education.